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에 물가관리 비상

농축수산물·공업제품·개인서비스 견인... 전기료 합세 가스·대중교통·상하수도·종량제 봉투 등 ‘상승 대기’

전기를 시작으로 가스, 대중교통 등 각종 공공요금도 ‘도미노 인상’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말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하반기 연쇄적인 요금 상승으로 인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인 1.8%를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오르는 등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내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농축수산물 또한 오름세가 소폭 진정됐으나 상승률은 7.8%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공업제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3.2% 증가하는 등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비 위축 개선으로 외식 등 개인서비스도 2.7% 올랐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 올해 물가 상승을 견인한 세 품목은 9월

이후에도 물가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아 전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 온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 품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다음달부터 인상되는 전기료에 오는 11월 가스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지하철·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요인이 상당해 ‘인상 대

기’ 상태에 들어갔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공공서비스 요금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국민지원금 등의 소비 효과까지 더해져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는 예상보다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지난 6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 1.8%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 물가 오름세가 기저효과

와 일시적 공급 충격에 따른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과 8월 물가상승률이 연중 최고치인 2.6%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물가 안정에 실패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4분기에도 1%대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의 기관들도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1%로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8%에서 2.2%로, 아시아개발은행(ADB)도 1.8%에서 2.0%로 각각 상향했다. /오지현 기자



가족의류 구경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4층 여성의류 보브 매장에서 올 가을 패션 아이템인 가족소재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내년 3월부터 신권 교환 어려워진다

한은, 과도한 수요에 기준 변경

내년 3월부터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신권으로 바꾸는 일이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새 화폐교환 기준에 따르면 내년 3월 2일부터 통용에 적합한 화폐, 쉽게 말해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로만 교환이 가능하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교환장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후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다.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화

폐의 경우 새 돈(제조 화폐)으로 교환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통용 가능 화폐의 제조화폐 교환이 일부 허용된다”고 말했다. 한은이 이처럼 화폐교환 기준을 바꾼 것은 제조화폐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은 화폐 교환장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가운데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이르렀다.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제조화폐가 차지하는 비중도 89.0%를 기록했다. /서미애 기자

소상공인 원데이블 참여 모집

광산구, ‘광산 장사의 신’ 추진

광주 광산구가 ‘광산 장사의 신’의 비법과 노하우를 전파하는 소상공인 원데이블 멘토링에 참여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모집한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소상공인 원데이블 멘토링은 광산구 사장님 아카데미의 성과와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사장님 아카데미를 수료한 ‘광산 장사의 신’과 다양한 장사 전략을 배우려는 소상공인을 1대1 매칭, 현장 진단부터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추진한다. 아카데미를 통해 ‘프로 장사꾼’으로 거듭난 100명의 수료생은 멘토로 나서 다양한 장사 전략을 후배 자영업자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멘토링은 10월부터 매주 1회씩 총 6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멘토·멘티 서로의 사업장을 상호 방문해 ▲대표 메뉴 선정하는 법 ▲온라인 맛집 입소문 내는 법 ▲단골 손님 유지법 ▲특색있는 가게 만드는 법 ▲위기 극복하는 법 등을 공유하게 된다. 참여자 모집은 10월 6일까지다. 식당·카페·공방 등 그동안 장사에 어려움을 느꼈던 광산구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신남방 주요 수출국에 ‘콜드체인(Cold Chain) 물류센터’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aT 제공

aT, 콜드체인 도입...농산물 수출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신남방 주요 수출국에 ‘콜드체인(Cold Chain) 물류센터’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콜드체인은 제품 생산 후 저장하고 최종 소비자까지 운송 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물류 관리 기법이다. 온도에 민감하고 부패하기 쉬운 냉장·냉동식품 유통에 필수다. aT가 콜드체인 유통에 공을 들이고 있는 태국은 최근 3년간 신선농산물 수출이 연평균 13% 성장세를 보이는 등 향후

시장 확장 전망이 밝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농림수산물 수출 사상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aT는 올해 콜드체인 물동량이 가장 많은 방콕과 근접 도시 간 공동 운송 노선을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북부 치앙마이, 남부 푸켓지역 등여력이 없는 한국 농식품 수입바이어들을 위해 신남방 주요 물류거점 5개국에 18개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광산구 관계자는 “소상공인 원데이블 멘토링은 상호학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며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골목상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데이블 멘토링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전화 또는 네이버폼(http://naver.me/x6Pfr7kc)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기업경제과(062-960-3878)에서 한다. 한편, 광산구 사장님 아카데미는 자영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광산구가 3년간 추진한 교육과정으로 총 1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윤영봉 기자

한전, 직원 8명 중 1명은 ‘억대 연봉’

부채 60조·전기요금 인상...‘방만 경영’ 비판

지난해 한국전력의 억대 연봉자가 3,000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유가 여파와 탈원전으로 인한 경영 악화도 60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고 8년 만에 전기요금까지 인상한 상황에서 방만 경영이란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의 2,395명 대비 577명 늘어난 동시에 역대 가장 많았다. 작년 기준 한전 전체 직원은 2만 3,389명으로,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

같은 기간 기관장 연봉은 2억6,505만원으로 전년보다 3,335만원 증가했다. 또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은 620명이 신청해 1인당 8,210만원 가량을 받았다. 지난해 한전은 1조9,515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으나 부채가 59조7,721억원을 기록하며 부채 비율이 112.1%에 달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부채 62조 9,500억원에 부채비율 122.5%를 기록 중이다. 이를 두고 연료비 상승과 탈원전 여파로 경영이 악화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이란 카드까지 꺼낸 마당에 정작 직원들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으나 사극에 불과했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보다 3.0원 오른 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매달 최대 1,050원씩 오르게 된다. /연합뉴스

제조중기 89%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원가 상승·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 애로사항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312개 제조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88.8%를 기록하는 등 제조 중소기업 대부분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한 조치에 따른 경영안정 효과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7.0%에 달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중 하나인 거론되는 경부하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업 경험이 있는 업체 126개사는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54.8%)’와 ‘에너지비용 지속상승 전망에 따른 경영불확실성 확대(32.5%)’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제조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제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가 23.7%, ‘6월, 11월 여름·겨울철 요금 → 봄·가을철 요금 적용’은 19.2%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절감과 관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수준으로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51.3%에 달했으며, ‘인상폭만큼 절감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5.8%에 불과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 발주패턴’이 24.4%,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 불가피’가 13.5%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절감시설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2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9.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216개사의 업체는 참여하

지 않은 이유로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랐거나 늦게 알아서’가 53.7%, ‘필요한 지원정책이 없음’이 20.6%를 기록했다. 양찬희 중소기업혁신성장본부장은 “전기요금 동결조치가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발전믹스(Mix)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전망에 산업계 전반의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드라이브로 인한 발전단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를 도입하고, 지원사업 규모와 홍보를 강화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전분기보다 kWh당 3원 인상한다고 밝힌 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찰문을 재고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년말 대비 45% 급등한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인해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현장에 울충격의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지현 기자

현대차 ‘캐스퍼’ 흥행 질주 성공했다

열흘 만에 올해 생산목표 2배 예약...역대 최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성과물인 현대차 캐스퍼가 본격 출시를 앞두고 초기 흥행에 성공을 거두면서 그동안 침체했던 국내 경차 시장도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캐스퍼는 23일 기준으로 약 2만5,000대가 사전에 예약됐다. 캐스퍼는 사전 예약 첫날인 14일 1만 8,940대를 기록하며 종전 최고였던 베스트셀링 모델 그랜저(1만7,294대)를 가볍게 제치고 현대차 내연기관차 중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올해 생산 물량이 사실상 ‘완판’된 셈이다. 위탁 생산을 맡은 광주글로벌모터

스(GGM)는 연말까지 1만2,000대, 내년부터 연간 7만대 이상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스퍼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탄생한 현대차의 첫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이자 2002년 아토스 단종 이후 19년 만에 선보이는 경차로, 현대차가 국내에서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첫 차량이기도 하다. 이처럼 캐스퍼가 인기를 끌며 그동안 내리막길을 걷던 경차 시장도 활기를 띌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아 모닝과 레이, 한국GM 스파크 등 국내 경차 판매는 6만644대로 작



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8월에는 작년보다 39.2% 급감한 5,130대에 그쳤다. 캐스퍼의 가격은 기본 모델 스마트 1,385만원, 모던 1,590만원, 인스퍼레이션 1,870만원이다. 터보모델 선택시에는 90만~95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연합뉴스